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 (02) 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달란트 비유

(마 25:14-30)

본문의 '달란트 비유'는 매우 유명한 말씀으로 여기에는 네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1. 주인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14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소유를 각 사람에게 그 재능대로 나눠주시되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소유를 맡기십니다(15절). 예수님은 각 사람의 재능을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나눠주셨습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으로 그 당시 건장한 한 사람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달란트는 상당히 큰 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께서 나눠주시는 달란트는 금전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2.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지체하지 않고 그 돈으로 장사를 시작하여 100% 수익을 냅니다. 그들은 받은 달란트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라는 청지기의 태도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수익을 낸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의 종된 우리가 할 일은 순종밖에 없다는 삶의 재설정을 하도록 합니다.

다섯 달란트를 받아 또 다른 다섯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주인은 저들이 남긴 이윤을 보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스럽게 일한 것을 칭찬했습니다.

3. 한 달란트 받은 종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잘한 것도 없지만 그다지 잘못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심하게 책망 합니다(26절). 주님의 평가는 얼마를 남겼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다했는지 아니면 게을렀는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4. 결산하는 주인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19절).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있는데, 그 때는 모든 것들을 결산을 해야 될 심판의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상당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를 받았는지는 신경 쓸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받은 달란트가 가장 합당한 것인 줄 알아 충성만 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작은 일에 충성하여 마지막 결산할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e Parable of the Talents

(Matt. 25:14-30)

"There appear four people in 'the parable of the talents' this text is a very famous passage.

1. The master of servants

"Again, it will be like a man going on a journey, who called his servants and entrusted his property to them" (v.14).

Here, a man refers to Jesus. He entrusted His property to servants according to their ability, without missing even a person (v. 15). Jesus gave five talents of money, to another two talents, and to another one talent,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At the rate of 6,000 denarius per a talent, by considering that a healthy man's daily wage was one talent at that time, we could realize that one talent was quite a lot of money. However, the talent here that Jesus gave them is not monetary things, but rather all the things that they possess.

2. The servants received five talents and two talents

The servants received five talents and two talents, without losing time, began to do a busy trade and made one hundred percent profits. They knew that the talents entrusted by Jesus were not theirs. They worked hard and made a profit, as a servant entrusted with talents. The parable of the talents encourages us to reset our life to become servants of Jesus have and obey him.

The master was liberal with his praise to the one who given five talents and gained five talents more, saying good and faithful servant to them. The master did not pay a compliment to them for making a profit but paid a compliment for their good and faithful work.

3. The servant received one talent

The servant received one talent seemed to have neither done well nor to have done wrong. Nevertheless, his master blames him as a wicked, lazy servant (v. 26). Jesus' evaluation does not depend upon how many profits they gain, but how loyal or lazy they 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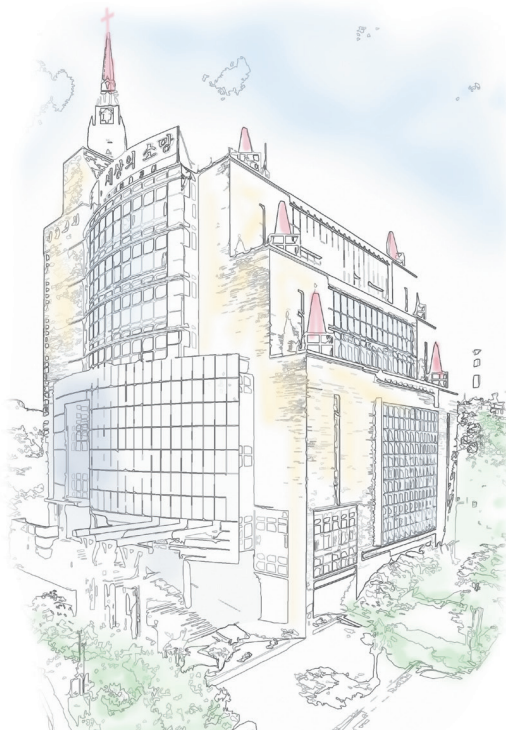
4. The master who settled account

"After long time the master of those servants returned and settled accounts with them" (v. 19).

The parable of the talents is said about the time of Jesus' return. In other words, there will be the time when Jesus comes again, which means the time of judgment when all of the things must be settled.

My beloved Christians,

All of us, every last man, received a good sum of talents. We don't need to take care of how much talent others received, or don't need to know reason why they received. By knowing that their own talent that they received is reasonable, they must be loyal. By being loyal even to even a few things, at the time of balancing our account,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us will be God's people receiving complement from Jesus' saying,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5 홍해작전」 승전보고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참석 연인원 13,628 명 -

2015년 홍해작전이 6월 6일(토)부터 25일(목)까지 17일 동안 13,628명이 참전하여 은혜 중에 마쳤다.

박노철 담임목사를 강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대상 16:10)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 특별새벽 기도회에 17회에 걸쳐서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을 강해함으로써 말씀의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고 홍해를 가르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었다.

각 교회학교 홍해작전 그림 그리기와 간증문 입상자 및 17번 전일 개근자(교회학교)는 다음과 같다.

- 그림 그리기 -

- 대상: 이시은 윤석민(유아부) 권예지(유치부) 김보겸(유년부) 김민선(초등부) 이인애(유초등부 연합)
- 금상: 김하준 윤서진 한세아(유아부) 양소울(유치부) 배유진(유년부) 임하린(초등부) 박세민(유초등부 연합) 최지훈(사랑부)
- 은상: 노윤(유치부) 손예진(유년부) 김수민(초등

- 부) 김채연(유초등부 연합)
- 동상: 오선아(유치부) 이예성(유년부) 윤주경(초등부) 박세영(유초등부 연합)
- 장려상: 이시우 임하람(유치부) 김은송 오유나(유년부) 문영주 윤다연(초등부) 배운아 송하은(유초등부 연합)
- 단체 장려상: 강주는 김은송 문영은 오유나 정우형 정은채 조연우 황휘성(찬양예배부)

- 간증문 입상자 -

- 고등부: 우현주 · 영어예배부: James Eppley
- 장년부: 김경자6 김은연 김찬진 박정섭 송지윤 유선희 유성택 이경희3 이근홍 이상은 이희정

- 17번 전일 개근자(교회학교) 10명

- 유아부: 권하울 노진우
- 유치부: 권예지 노진철
- 초등부: 박주원 장해운 정은지 홍성범 홍성현
- 중등부: 장해라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절

주일 I · II · III부 예배-성찬식/ 맥추감사헌금 드려

우리 교회는 7월 첫 주일을 맥추감사절로 지킨다. 맥추감사절은 밀과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서 현대에는 한 해의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

며 감사하는 날로 지킨다. 다음 주일 I · II · III부 예배 시간에는 주님의 몸과 보혈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고, 맥추감사헌금을 준비하여 드린다.

교구 헌신예배 특별찬양

-다음 주일(7월 5일) 오후 찬양예배 시-

이번 교구 헌신예배 시에는, 교구위원회의 섬김위원들뿐만 아니라, 1교구부터 16교구까지 모든 교구의 성도들도 분당 2층과 3층의 지정된 각 교구의 좌석에 앉아 예배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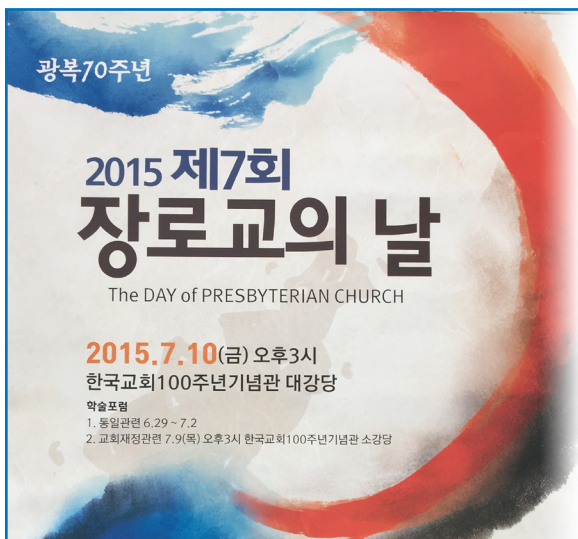
특별히 특송 시에는 박정선 장로의 지휘로 찬양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다함께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은 오후 4시까지 분당 2층과 3층에 지정된 각 교구의 좌석에 앉아, 특송연습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2015 청년부 하계 국내전도수련회

청년부는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경기도 광주 지역의 5개 미자립 교회와 강원도 고성 1개 교회로 전도위원회 산하의 70인 전도대와 이미용 선교팀 그리고 의료 선교팀과 동역하여 “교회를 돕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한다.

- (1) 주 제: “섬기는 기쁨, 누리는 은혜”
- (2) 일시 및 장소 :
(1차) 강원도 고성 대진중앙교회: 7. 13(월)-16(목)
(2차) 경기도 광주지역 5개 교회: 7. 28(화)-31(금) 갈보리, 생명샘, 직동, 큼기쁨, 세계로 교회 / 서울장신대(베이스캠프)



금년도 제7회 장로교의 날 집회가 7월10일(금) 오후3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종로구 대학로3길 29)에서 열린다.

2015년 대한민국 광복70주년을 맞아 ‘사랑으로 교회, 사회, 남북의 통일을 이루어 가는 한국장로교회가 되기 위해 장로교전통예배를 통해 장로교단의 연합과 일치성을 선언하고 비전70의 대국민사랑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님 사랑의 나라 국민출애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국장로교 목회자, 장로교 지도자, 일반 성도 1,8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교회 이종운 원로목사가 설교를 한다. 한국장로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74)

(문 174)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라고 했는데(창12:4) 이것은 스테반의 설교와 상충되지 않습니까?

(답) 사도행전 7:4에서 스테반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매 하나님이 그를 거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고 설교 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1:32에 의하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창 11:26)고 했으니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135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고 창 12:4은 분명히 밝히고 있으니 모순이 생긴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스테반은 그의 설교에서 60년(135-75)을 간과한 것처럼 보일 것이고 따라서 아브라함은 데라가 죽기 60년 전에 하란을 떠난 것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테반이 역사를 잘 못 이해하고 말한 것인가?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이 틀릴 수가 없다면 숨은 진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 11:26을 다시 읽어야 할 것입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고 한 것으로 보아 아브라함이 장자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설은 하란이 데라의 장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우르에서 먼저 죽었기 때문에(창11:28) 그의 이름은 마지막에 놓이게 되었고 여기서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앞에 놓은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 데라의 나이 130세 때 막내로 태어났지만 그의 역사적 위치 때문에 마치 그가 장자처럼 보인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는 창 12:4 말씀과 스테반이 설교한 대로 하란에서 데라가 죽으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는 말씀들은 모순되지도 않고 상호 충돌되지도 않는 역사적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2015 홍해작전을 승리로 이끄신 분은 엘 사다이,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닛시의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교회, 가정과 이웃과 일터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으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간 배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마음껏 자랑하고 그 이름에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자. (편집부)

6월 20일(토) - 여호와 추리(Jehovah Tsurì) 나 의 반석이신 하나님 (시 144:1-4)

반석은 견고함과 보호와 안식의 느낌을 준다. 당신의 인생에는 반석이 있는가? 여호와 추리,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산다면 다음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 환란 날에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를 얻게 된다

시편 71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바위이시고 반석이시고 피할 요새라고 고백한다.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근심걱정거리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반석이신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피할 길을 주시고 안전으로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여호와 추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2. 지치고 곤고할 때 새 힘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시원한 생수가 끊임없이 솟아난 것은(민 20:11),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찢겨지자 예수님께로부터 영생물이 흘러나왔다. 우리는 그 물을 마심으로 구원을 얻었고, 지친 인생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

여호와 추리, 반석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자. 생소한 영생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자.

6월 22일(월) - 여호와 멜렉(Jehovah Melek) 왕이신 하나님 (시 145:1-7)

여호와 멜렉, 우리의 왕은 세상의 왕과는 다른 분이시다. 그 분은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시며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왕이시다.

1. 그 분은 영광의 왕이시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영원한 문들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태고의 문들이다(시 24:9). 영광의 왕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 분은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는 빛에 거하신다(딤후 6:15-16).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멜렉, 우리의 왕께만 영원한 존귀와 권능을 돌려야 한다.

2. 영광의 왕이 겸손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영광의 왕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어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오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우리가 왕께로 갈 수 없으므로 그 분께서 친히 우리에게로 오신 것이다.

3. 평강을 주시는 왕이시다

여호와 멜렉 하나님은 평강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오셨다. 세상에 속한 평강이 아닌 아가

페 사랑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인한 평강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요 14:27).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에게 바로 이와 같은 평강이 있었다(빌 1:20-21). 이런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는 성도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전지전능하시고 천군천사를 호령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멜렉, 왕이신 하나님을 자랑하자. 그리고 그 분이 주시는 평강을 마음껏 누리자.

6월 23일(화) - 여호와 치드케누(Jehovah Tsidkenu)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렘 23:5-6)

세상은 불의에 가득 찼고, 우리 또한 불의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불의 가운데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 여호와 치드케누, 하나님은 우리의 공의이시다(렘 23:6).

1.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속성적 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타났고, 거룩하신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여호와 치드케누 하나님은 창조된 세계의 통치자로서 최후의 재판장이시다. 여호와 치드케누 하나님은 불의하게 판단하지 않으며 모든 것에 차별함이 없는 공평으로 판단하신다.

2. 불의로 가득 찬 이 세상

세상의 불의에 대해 사도 바울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능욕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무자비한 자라고 말씀한다. 우리가 바로 이런 불의의 일부이다(롬 3:10).

3.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불의한 자들이다. 우리는 스스로 의를 만들어 낼 수 없다. 그런 우리에게 의가 선물로 주어졌다. 이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빌 3:9). 우리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뤄주셨다(롬 3:25). 의로우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의롭다 칭해주셨다. 이신칭의(以信稱義),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위대한 것발이다.

여호와 치드케누,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더욱 더 깊이 사랑하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6월 24일(수) - 여호와 삼마(Jehovah Shammah)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겔 48:35)

언제나 거기에 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편재하심, Omnipresence of God 이라고 한다. 깊은 영성을 소유한 성도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믿고 코람테오의 신앙으로 살아간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이름은 에스겔 48장에 등장한다. 바벨론 느브갓네살 왕에게 비참하게 짓밟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고 믿었다(겔 1-32장).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도 거기에 계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브갓네살 왕에게 몰락을 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서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여 바로 그 날에 바벨론 느브갓네살 왕이 초토화 시켜버린 예루살렘이 사람이 거주하는 아름다운 도시로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다(겔 36:33). 그리고 회복될 이스라엘 땅이 각 지파별로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를 예언하셨다(겔 48장).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이 좁고 위험한 광야에서 잠들 때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

당신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불편한가? 무소부재하시고 편만하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가끔 피해가고 싶을 때가 있는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언약을 이뤄주시기 위해 항상 거기에 계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자. 오늘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코람테오의 삶을 살자

6월 25일(목) - 예수 임마누엘(Jesus Immanuel)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마. 1:18-25)

세상의 인류역사와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끝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시며 처음이요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두 개의 계시를 주셨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느낄 수 있는 일반 계시(롬 1:20), 또 하나는 특별 계시, 곧 성경 말씀이다. 우리는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

성경은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거룩하시며, 신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영원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은 복음이시다.

창조사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상의하시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러나 영화와 존귀로 관이 씌워진 존재,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령이 되게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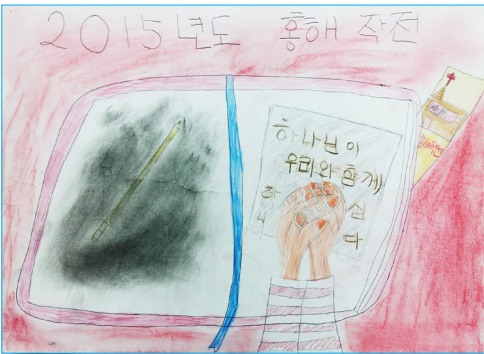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범죄한 인생이 되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처음 사랑에는 변함이 없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마 1:21). 범죄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증명한다.

Jesus Immanuel을 묵상하자. 그 이름을 자랑하고 찬송하며 그 이름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자.

2015 흥해작전



- | | |
|---|---|
| ① | ⑥ |
| ② | ⑦ |
| ③ | ⑧ |
| ④ | |
| ⑤ | |
- ① 유아부 윤석민 이시온
 - ② 유치동2부 이인애
 - ③ 초등부 김민선
 - ④ 유년부 김보경
 - ⑤ 단체 어린이 천양애배부
 - ⑥ 유치부 권예지
 - ⑦ 유년부 손예진
 - ⑧ 유년부 이예성

B.M.W. 운동

Bus Metro Walking

교회 직원 모집

-식당근무 1명, 방송실 1명-

교회 직원을 모집한다. 식당에서 근무할 직원 1명과 방송실 직원 1명이다. 제출서류는 세례교인 확인서 1통,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이다. 교회1층 사무국에 2015년 7월19일까지 제출하기 바란다.

전반기 회계 감사 실시

7월5일(주)까지 사무국에 제출토록

2015년 전반기 회계 감사를 실시한다. 찬양대, 교회학교 등 각 해당부서 회계 담당자는 회계장부를 정리하여 부서장 결재를 득한 후 7월 5일(주)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기 바란다.

- #### 등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7월4일(토) 사랑의 쌀운동 조찬기도회, 몽골 IUB대학교 이사회에서 각각 설교한다.
 - 개업:5교구 최수정 집사(최학인 장로, 최소희 권사 자녀) 하나무어(THE여행) 010-5066-5012
 - 주일식당봉사 : 바울 선교회(6.28) 엘리야 선교회(7.5)
 - 금주의 식사 제공 : 유관모 집사 조정임 성도 가정 임경락 집사 김혜중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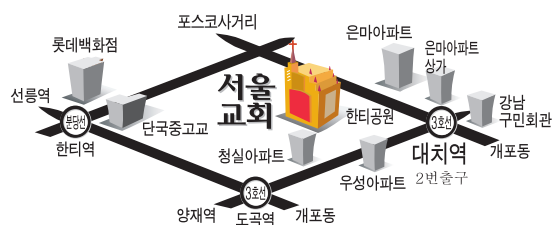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흥해작전을 통해 받은 은혜를 힘입어 모든 성도들이 더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 교구 헌신 예배 특별찬양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 맥추감사절을 지키며, 한 해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교회 오시는 길



서울교회QR코드

